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절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식)는 설명절을 앞두고 엄선된 고품질의 우수산품을 모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모음집’을 제작·배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품목별 품평회(축산, 과일, 식품, 전통주 등) 수상 제품,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지자체 추천 상품 등 300여 개 품목의 농수산물품이 수록되었다.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품목별 모음과 함께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였다.

특히, 금번 설명절 선물 모음집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실속형 상품으로 선물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우리의 고품질 농수산식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 명절 우리 농수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설 선물 모음집은 온라인(www.holidaygift.co.kr)에서 볼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우리 농수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선물로 우리 농수축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겨울방학 청소년 대상 국경검역 지킴이 봉사단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는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겨울방학 동안 국경검역 홍보와 청소년 봉사활동을 연계한 ‘청소년 국경검역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유지되고 있어 추가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 1일 검역관 체험을 통해 농·축산물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청소년 국경검역 지킴이’는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청정 대한민국 유지를 위한 국경검역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해당 청소년들이 직접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해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 온라인 신청(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두불’)

‘국경검역 지킴이’ 봉사단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1일 검역관으로서 직접 국경검역 활동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검역본부에서는 구제역·AI 등이 발생하는 국가를 다녀오시는 여행객들에게 축산농장 방문 및 가축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나 망고·사과 등 식물류와 같은 반입금지 대상 검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청사이전 강원도 대관령에 새둥지 틀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가금연구소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었던 가금연구소(충남 천안시 성환읍)는 2014년부터 상대적으로 철새의 유입이 적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이전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후 예산확보, 부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 등이 이뤄졌으며,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19일 이전을 완료했다.

가금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현장연구시설인 계사와 오리사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으며, 두 시설의 거리(이격거리)도 500m가 되도록 했다.

사육시설은 차단방역을 크게 강화했다. 차량소독시설은 자체 고안한 밀폐형 소독시설을, 대인소독시설은 샤워와 건식샤우나 시설을 각 계사의 모든 실에 설치해 질병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한편,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해당 마을주민들과 소통한 끝에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냈다.

즉, 연구과정에서 생산한 계란을 마을의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구입한 계란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하며, 마을이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거듭나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가금연구소장은 “가금연구소의 대관령 이전을 계기로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로부터 소중한 고유 유전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차단방역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단체협약 체결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약속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 이하 위생방역본부)와 위생방역본부 노동조합(위원장 박해진, 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 본부에서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금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고, 노사양측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임경중 본부장과 박해진 위원장은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뢰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이를 통해 “노사 화합과 상호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법규위반 7개 업체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 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20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해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017년 축산물HACCP교육 정원 26% 확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1월 17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본원에서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경영인과정(정기)'을 시작으로 '2017년도 축산물HACCP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축산물HACCP 교육은 2016년도 교육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신청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4회, 850명이 증가된 교육 횟수 51회, 교육 정원은 4,130명으로 편성됐다.

축산물 가공·유통HACCP 경영인과정의 경우 연 24회 2,400명(1회당 100명), 기본과정은 연 8회 560명(1회당 70명)으로 편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과정별로 각각 540명과 310명이 증가했다.

교육 횟수 및 장소는 가공·유통업소 및 농가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편성·선정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경영인과정과 기본과정의 경우, HACCP 인증업체 수가 많고 지역별 신규인증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 영남, 중부지역의 교육 횟수를 확대했다.

특히, 찾아가는 교육실현을 위해 '특별교육'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가축질병 발생, 농번기, 브랜드 및 농가 단체인증 등 지역별 특이사항을 반영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협, 브랜드 농가, 안전관리통합인증 업소 등에서 특별교육 요청시 적극 추진하여 HACCP 인증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축산물HACCP 교육의 전체 일정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www.ihaccp.or.kr>)의 공지사항과 교육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시와 학교급식 안전위해 '맞손'
안전한 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세종시가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급식재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 납품업체의 제조공정 표준화로 공공(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유치원과 동지역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물급식 지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협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소 DNA 동일성 검사, 축산물 이력제 관리실태, 작업장 위생관리 등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 단계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축평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원받아 안전한 축산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초등 교과수업 연계...식품라벨 확인
농식품독서교실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배상원)은 부설 전문자료실을 활용해 1월 10~11일 이틀간 인근 초등학교 교과 수업과 연계한 '식품라벨 확인 및 불량식품 골라내기'를 주제로 농식품 독서교실을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된 이번 독서교실은 새로운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보충하여 실시되었으며, 첫째 날에는 식품라벨을 주제로 한 책읽기 및 책놀이 형태의 독서교육이, 그리고 이튿날에는 서울 aT센터 전시장 및 화훼공판장 방문·견학이 각각 이뤄졌다.

aT 배상원 농식품유통교육원장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라벨을 확인하고 불량식품을 골라내는 방법을 익혀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식품라벨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농식품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의미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